

#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ercussion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Living in Residential Care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석사 이경진\*\*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전공  
교수 김수지\*\*\*  
Dept. of Music Therapy, Myongji Univ.  
Master : Lee, Kyong-Jin  
Professor : Kim, Soo-Ji

---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ussion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for the elderly lived in residential care. 12 older adults participated in the 40-min. percussion program for 4 weeks(10 sessions). The percussion program consisted of three steps; 1) introduction for creating rapport and relationship, 2) process for mood induction and increasing interaction, and ending for increasing self-achievement and confirming the changed mood. Korean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and Self-Esteem Scale (SES) were administered before the first session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Result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 $p<.05$ ) in KGDS ( $p=.020$ ) and SES ( $p=.025$ ).

Findings imply that percussion program can induce positive change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for elderly in the residential care, and more depressed elderly group may have better outcome in percussion playing. Future studies should consider various levels of depression among elderly, and design the program to be more sensitive to the level of functioning.

---

▲주요어(Key Words) : 타악기(percussion), 음악치료(music-therapy), 시설노인(elderly living in residential care), 우울(dep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이경진 (E-mail : annalee21@naver.com)

\*\*\* 교신저자 : 김수지 (E-mail : specare@hotmail.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노년기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김동휘, 2008).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신창환, 2010) 노인 개인의 건강문제 뿐 만 아니라(이재모 · 이신영, 2006) 핵가족화, 노인소의 현상 등(최영희, 1999) 사회구조적 변화가 발생되면서 노인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부양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노인의 시설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시설은 2010년 397개에 달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약 17,270명이고 이 중 무료양로시설이 330개로 이용자는 약 11,906명이 생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노화나 노인질환에 따른 기관입소는 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거주형태의 변화는 노인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광수, 2007). 시설노인의 경우 생활환경의 변화, 사회 및 가족으로부터의 고립된 생활 등으로 인해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강선경, 2009; 강환세 · 마은경, 2008; 박금자 등, 2007; 정순돌, 2004; 차주원, 1991). 이 중 노인우울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소 시 우울 발생 빈도가 재가노인 보다 19.9%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yne et al., 2002). 또한 삶의 연속성의 분절로 인한 생활만족도의 저하는 노인우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며, 심리 사회적 노화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사회 지지 자원이 감소된 시설노인들의 경우 우울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는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선, 1998; 박금자 등, 2007). 특히 재가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은 심리적 지지기반이 약화되어 사회적 상호교류의 어려움을 겪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낮게 느끼게 되어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화자, 2006).

이러한 시설노인들의 심리 사회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미술(김성숙, 2010)이나 원예(한정숙 · 이경순, 2002), 음악(김귀분 등, 1999; 이주희, 2001), 수공예 만들기(박용순 · 김희영, 2010)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중 음악의 경우 비언어적 매체로서 심리적 문제에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듣는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기분이 유도되거나 표현

하도록 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등을 음악 안에서 경험함으로써 정서 및 심리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법 중 타악기 연주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감정의 표출구가 되기도 하고 연주자 내면의 감정을 자극하여(Clair & Memmott, 2008; Gfeller, 1999)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타악기를 연주 할 때 표현되는 감정은 악기소리를 통하여 부정적,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며, 이러한 감정은 악기연주를 통하여 감정의 변화를 유도 하기도 한다(Radocy & Boyle, 1997).

특히 타악기의 리듬연주는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에너지로 작용하며(Gaston, 1968; Radocy & Boyle, 1997),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움직임이나 동작을 조절하여 신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Kwak, 2007), 긴장을 완화시켜 기분전환을 유도하며 인간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신체리듬을 조절하기도 한다(Gfeller, 1999). 또한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단순하고 쉬운 리듬만 가지고 음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리듬 그 자체로도 음악적으로 창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등 오락적 측면의 음악활동이 강조되어 흥미나 즐거움을 통하여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음악 치료적 측면에서 개별적인 음악 요소의 활용, 즉 리듬을 통한 타악기 연주는 정서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면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교육 및 경제적 배경이 다른 노인들에게 비언어적 활동인 타악기 연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다양한 관계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료양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사전, 사후 측정된 우울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사전, 사후 측정된 자아존중감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시설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우울(depression)은 정신장애 중 정동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리적 증상으로는 감정의 변화와 정신기능의 저하를 보이며, 신체적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불면증, 체중감소 등을 보인다(이영호, 2006; 하정은, 2002).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들은 일반적인 노인질환의 증세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 우울장애로 인식되지 못하거나(Koenig & Blazer, 1996),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하게 된다(전은영 등, 2005).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 노인우울은 일차적 우울(내인성)과 이차적 우울(외인성)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Cohen, 1990), 신체질환, 가족 또는 친구의 사망 등으로 인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이차적 우울발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tz et al., 1996).

시설노인의 경우 일반 지역사회 노인인구에 비해 10~15%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Hooyman & Kiyak, 2002), 이는 신체적 건강 상태나 개인적, 사회적 관계, 지지적 관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변호순, 2005). 시설노인의 경우 가족이나 사회와의 낮은 접촉, 사회적 지원과 지지의 약화 등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김원경, 2001; 서경현·김영숙, 2003; 이미진·이기옥, 2005), 가족과 친척 간의 접촉 빈도(배재남, 2001),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이미진·이기옥, 2005). 시설 안에서 오랜 생활은 사회관계와의 차단, 허무감 등이 우울로 나타나는데(김미혜 등, 2000), 시설노인의 우울 발생률이 70-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Cohen, 1990; Morgan & Kunkel, 2001). 또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무력함을 느끼거나 환경상태, 서비스 등에 만족도가 낮을 때에도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영식,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 역시 은퇴나 배우자 사망, 건강상태 등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Hooyman & Kiyak, 2002: 184).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self-worth)에 대한 감정, 즉 자신에 대한 평가나 믿음을 의미하는데(George, 1998; Maddox et al., 2001), 이는 자아개념과 달리 자신의 평가에 대한 정서적(affective) 평가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정서에 대한 지지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은 열망과 열정, 가치, 자기 성취감 등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성공감을 느낄 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민 숙 등, 2001). 시설노인의 경우 시설 안에서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생활,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과 격리, 경제적, 사회적 지지의 약화, 열악한 환경이나 고립된 생활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며(김정선, 1998; 이화자, 2006; 차주원, 1991), 일차적 관계인 가족,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없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기도 한다(정순돌, 2004).

집단 활동의 참여는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원봉사활동(김주현·한경혜, 2001), 원예치료 프로그램(유용권·정효용, 2010; 한경희 등, 2009), 스포츠활동(김이량·전혜자, 2009; 정진오, 2008), 미술활동(이애경·이근매, 2006), 음악활동(양혜경, 2010; 최애나 등, 2010) 등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시설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외생적 요인에 민감하며,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에 다감각자극 뿐 아니라 정서자극도 함께 유발할 수 있는 음악을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2.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치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관한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 프로그램들이 치료적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정현주, 2005), 특히 타악기를 이용한 연주는 다른 악기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 낮은 노인들에게도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청각과 촉각으로 인지되는 음악적 자극이 전달되면서 악기의 진동이나 음악적 요소들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Gfeller, 1999). 이러한 적용은 정서변화와 함께 연상 작용도 함께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의 개입은 대상자의 현재 기분상태에 맞는 음악수준에서 시작되어 정서상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질성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Meyer, 1956; 정현주, 2005), 음악을 통한 심리 정서적 변화에서 중요한 음악의 예견성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일정형태의 음악구조가 친숙함을 만들고 이는 성취감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Clair & Memmott, 2008).

타악기 연주는 비언어적 표현방법의 수단으로써 관계형성 뿐만 아니라(Clair & Memmott, 2008) 자기표현에 필요한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사용이 가능하며(이덕조, 2003), 음악적 환경 안에서의 연주는 즉각적인 소리 반응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단순한 리드미컬한 박막을 연주하여 유지하는 것으로도 노인들에게는 성공적인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쉽게 제공 할 수 있다(Clair & Memmott, 2008). 또한 연주하는 과정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만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Boxill, 1985).

특히 타악기 음악에서의 리듬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는데, 리듬을 이용한 타악기 연주는 단순한 리듬 연주만으로도 노인들의 능동적인 태도와 정서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Radocy & Boyle, 1997), 음악적 흐름에 따른 순서와 리듬의 강세에 내재하고 있는 충동적인 요소가 음악적 리듬 연주를 통하여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연주를 가능하게 하며 각기 다른 개인의 반응을 유발하게 하기도 한다(Davis, 1999).

타악기를 이용한 리듬연주는 음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변화를 거치면서 역동적인 리듬적 진행으로 나타나거나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음악적 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힘을 연주자가 리듬을 통하여 느끼고 감지하게 됨으로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면서 정서적 변화를 유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Radocy & Boyle, 1997). 이처럼 리듬 변화를 이용한 타악기 연주는 시설노인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룹에서의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심리적 도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치료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북경 Anding 병원에서 우울한 두 그룹의 노인들에게 동일한 anti-depressive(우울예방)약물을 제공하면서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보였지만, 치료가 종료되면서 악기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이 우울 감소를 보였으며, 병원생활에서도 능동적인 태도와 화합하는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Chen, 1992). 또한 시설노인의 우울 감소와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우울 감소의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유미나, 2009), 최말옥과 박혜령(2005)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악기연주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정서 변화 외에도 타악기 연주를 통한 생리학적 변화도 함께 보고되고 있는데 성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드럼연주는 생리학적 변화, 특히 코티졸 수치와 면역력의 변화 뿐 아니라 우울감 향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ittman et al., 2000), 드럼연주를 통해 제공되는 리듬과 청각자극들은 뇌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xfield, 1990). 따라서 일반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악기 연주는(나미희, 1999; 최말옥·박혜령, 2005) 노인들에게 타악기를 자유롭게 두드리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창조성, 그룹 안에서 상호간의 관계성 등의 경험을 제공하며,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청각, 촉각적 피드백은 참여하

는 노인들의 정서표현과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는 무료시설양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3회 40분씩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 건강상태, 종교, 음악에 관련한 문항은 작성하여 조사 실시 하였다.

본 연구 참여를 위한 대상자 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상지의 대/소근육 사용이 가능한 자.
- 2) 연구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이 가능한 자.
- 3)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24점 이상인 자(무학인 경우 20점 이상).

모든 연구 참여자는 문서로 된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자에 의해 연구내용과 절차에 대한 구두 설명이 함께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은 아래와 같다.

#### 1) 우울척도

우울 척도는 Yesavage(1983)가 개발한 것을 정인과 등(1997)이 우리나라 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개발한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 KGD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 수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들의 신체기능, 감각기능, 인지기능 등을 고려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도구의 30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기분이나 상태에 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정서적 불편감 (Emotional discomfort), 비판적 사고 및 불행감 (Negative thinking and Unhappiness feeling), 신체적 약화 및 기력쇠퇴 (Physical weakening and decreased vitality), 인지기능저하 (Cognitive dysfunction), 사회적 관심과 활동저하(Decreased social interest and activity)등 총 5개의 구성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 당 1점씩 계산되어 30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점수의 결과는 14~18점 사이는 우울의심 및 경도 우울, 19~21점 사이는 중도 우울, 22점 이상의 경우에는 심한 우울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esavage(1983)가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정인과 등(1997)이 표준화한 노인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Self-Esteem Scale; SES”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1, 2, 4, 6, 7)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5문항(3, 5, 8, 9, 10)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 가능 범위 점수는 1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전병재(1974)가 번안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 할 때는 Cronbach’s  $\alpha = .62$ 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2. 연구 절차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주 3회씩 40분 동안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동의서와 비디오/오디오 촬영 동의서 및 연구 대상자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난 후 노인우울 척도(KGDS)와 자아존중감 척도(SES)를 사전, 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2) 타악기 그룹 연주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시설노인의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단계 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회기(도입)는 음악적 환경 내에서 그룹원 간의 친밀감과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3-8회기(전개)는 타악기 연주를 통한 정서의 변환 유도 및 상호 작용 증진, 9, 10회기(종결)는 타악기 연주를 통한 성취감 유도와 변화된 정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3.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 논거

1) 1-2회기(음악적 환경 내에서 그룹원 간의 친밀감 및 관계 형성):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서 오는 우울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를 위해 첫 번째로 접근되어야 할 부분은 그룹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보고 있으며(Clair & Memmott, 2008), 음악 안에서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룹원 간의 소통과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타악기의 리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과거에 자주 접하던 소리를 연상하여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리듬의 구조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룹원 안에서 추억을 회상하고 나누면서 그룹의 통합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형성 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한 박을 유지하면서 같은 리듬을 연주 하도록 할 때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룹원 간의 관계형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3-8회기(타악기연주를 통한 정서의 변화 유도 및 상호작용 증진): 시설노인의 정서적 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리듬을 이용한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은 비언어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표현 하도록 하여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타악기의 역동적인 소리가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긴장과 불안을 감소하도록 도와주어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고(Meyer, 1956; Radocy & Boyle, 1997), 타악기의 연주 방법에 따라 그룹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1>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회기	목표	활동내용
도입 (1-2회기)	음악적 환경 내에서 그룹원 간의 친밀감 및 관계형성	노인의 기능수준과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 전달하기, 박수 리듬 전달하기 등의 집단 전체 대상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리듬감의 증진을 위해 신체부위를 활용한 규칙적인 리듬 연주, 일상생활 리듬 연주 등을 시도한다. 리듬패턴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다양한 악기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전개 (3-8회기)	타악기연주를 통한 정서의 변화 유도 및 상호작용 증진	음악의 다이내믹과 템포, 리듬의 복잡성 등 음악적 요소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청각 및 촉각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말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익숙한 리듬패턴을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리듬을 연주하도록 하며, 연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숫자악보, 그림악보, 손동작 등을 시각적 큐로 제시한다.
종결 (9-10회기)	그룹연주를 통한 성취감 유도 및 변화된 정서 확인	그룹 상호간의 연주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타인의 리듬 모방 연주하기, 리듬패턴 주고받기 등이 주를 이루며, 연주의 시작과 멈춤, 템포의 변화 등을 그룹원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 타악기 연주를 통한 감정표현을 유도하고, 자신이 표현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타악기의 일정한 리듬 연주의 다이내믹은 그룹원 간의 청각적 피드백을 통하여 움직임을 유도하고 신체적 움직임을 조절하여 긴장을 이완시키고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리듬 연주 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이는 소리 강도의 변화와 함께 자극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여 내면에 있는 감정을 발산하도록 유도하고, 정서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Radocy & Boyle, 1997). 리듬을 이용한 타악기 연주는 비언어적 활동으로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그룹원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서로의 지지적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9-10회기(그룹연주를 통한 성취감 유도 및 변화된 정서 확인): 타악기 연주는 다른 악기에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어지지 않으며 즉각적인 청각적 피드백으로 그룹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리듬을 이용한 그룹 연주에서는 그룹원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Clair & Memmott, 2008) 그룹 연주를 통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리듬을 이용한 그룹연주는 서로간의 음악을 통한 만남으로 일체감과 통일성을 느끼며 서로간의 지지와 변화를 가져다주는데, 이로 인하여 정서적 변화로 이끌어 주게 될 것이다.

#### 4. 분석방법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KGDS

와 SES검사 척도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통계처리는 SPSS(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변화는 Wilcoxon으로 검증하였다( $p < .05$ ).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설문에 연구 대상자는 여성이 75% 남성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분포는 70-90세까지로 80세 이하가 58.3% 90세 이하가 41.6%를 차지하고, 교육정도는 무학이 33.3%, 초졸 33.3%, 중졸 8.3% 고졸 25%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3%, 기혼 25%, 이혼 16.7%, 사별 50%를 나타냈으며, 시설입소 기간은 1년 미만이 33.3% 3년 이상인 6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좋아하는 음악장르는 클래식이 8.3%, 대중가요 25% 종교음악 33.3% 국악 16.7% 기타 16.7%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을 접하는 시간으로는 하루에 30분 미만이 25%였으며 접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5%를 차지하고 있었고, 선호하는 음악적 분위기는 경쾌한 음악이 75%, 차분한 음악 8.3% 기타로 16.7%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

대상자	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입소기간	좋아하는 음악장르	음악을 접하는 시간	선호하는 음악적 분위기
A	남	79	초졸	사별	2년	기타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B	여	84	무학	사별	10년	종교음악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C	여	84	고졸	사별	10년	종교음악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D	여	89	무학	기혼	5년	대중가요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E	여	80	무학	사별	3년	국악	접하지 않음	기타
F	여	75	고졸	사별	7년	대중가요	30분미만	경쾌한 음악
G	여	75	무학	기혼	1년	클래식	30분미만	차분한 음악
H	여	83	초졸	이혼	2년	대중가요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I	여	85	초졸	사별	3년	종교음악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J	여	75	중졸	미혼	7년	종교음악	접하지 않음	경쾌한 음악
K	남	78	초졸	기혼	1년	국악	30분미만	경쾌한 음악
L	남	80	고졸	이혼	5년	기타	접하지 않음	기타

2. 대상자 우울,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에 대한 결과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Wilcoxon으로 검증한 결과 우울 사전점수 13.0점,

사후점수 10.1점( $p=.020$ ), 자아존중감은 사전점수 27.1점, 사후점수는 29.9점( $p=.025$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표 4>, <그림 1> 참조).

<표 3> 전체 대상자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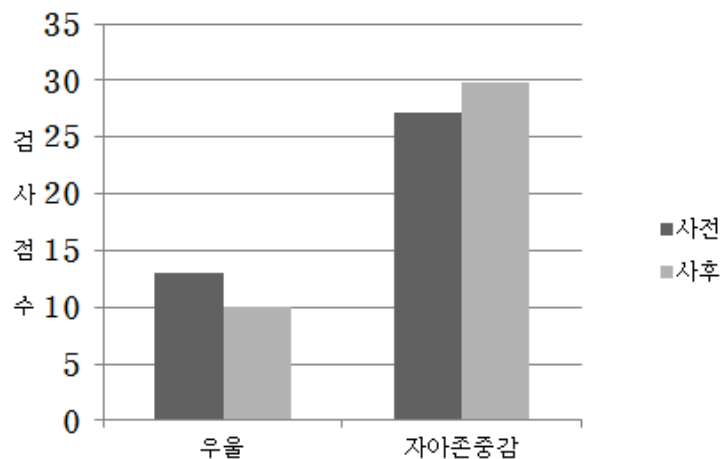
		M	SD	n	z	p
우울	사전	13.0	6.02	12	-2.325	.020*
	사후	10.1	4.80			
자아존중감	사전	27.1	5.74	12	-2.238	.025*
	사후	29.9	3.67			

\* $p<.05$

<표 4> 전체 대상자 검사 정보

N=12

대상자	K-MMSE	우울사전	우울사후	자존감사전	자존감사후
A	24	7	5	34	32
B	25	7	7	30	32
C	25	14	11	26	30
D	20	17	15	30	32
E	20	24	21	16	23
F	25	15	10	31	31
G	21	13	10	26	30
H	21	21	11	21	25
I	29	9	12	30	29
J	25	8	8	35	33
K	21	5	2	27	36
L	20	17	10	20	26



<그림 1> 우울,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평균 검사 차이

### 3.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관찰 분석

세션 초반(1~2회기)에는 프로그램 내에 언어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무표정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악기 연주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악기를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으며, 처음 악기를 접하는 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연주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리듬연주(손, 발을 이용한 리듬연주, 일상생활 리듬연주 등)가 반복되면서 연주 참여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악기연주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제시될수록 연주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세션 중반(3~8회기)부터 도입된 말 리듬은 노인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익숙한 말 리듬(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악기로 연주하는 것에 높은 성공률을 보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언어반응도 많이 관찰되었다. 리듬연주 반복 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이내믹과 템포는 노인들의 집중력을 이끄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정서자극도 함께 이루어져 연주의 집중 뿐 아니라 긍정적인 표정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세션 후반(9~10회기)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그룹 상호작용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리듬을 주고 받거나 모방연주 등이 시도되었으며 리듬의 정확도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세션 초반과 비교하여 변화된 그룹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개인별로의 감정표현 활동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언어 설명과 함께 연주시간 자체도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션에서 관찰된 긍정적 언어 및 정서변화와 증가된 연주 참여는 타악기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익숙해지는 학습효과 뿐 아니라, 비언어적 환경에서 그룹원 간 타악기 소리만을 이용해서 활동함으로써 안전한 그룹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내적인 변화의 유도 뿐 아니라 청각, 촉각 등 직접적인 감각자극도 함께 이루어져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 심리, 정서적 변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무료시설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결과 사전점수 13.0점, 사후점수가 10.1점( $p=.020$ )이며, 자아존중감은 사전점수 27.1점에서 사후점수 29.9점으로( $p=.025$ )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5$ ).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타

악기 연주가 자기표현을 촉진시키고,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으로 사용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타악기 연주가 청각적 자극을 통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남으로써 신체적 경험을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타악기의 역동적인 리듬 연주가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정서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시설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타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기를 함께 사용한 프로그램에서 시설노인에게 우울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유미나, 2009; 이주희, 2001), 본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악기 연주만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도 우울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에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일 때 보다 드럼을 연주할 때가 활동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Clair & Memmott, 2008),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리듬 중심의 타악기 연주가 청각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내면의 정서적 변화를 불러일으킴을 확인함으로써 시설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타악기 연주 방법에 따른 대상자들의 참여도와 반응을 볼 때 본 연구의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손과 말렛으로 연주하도록 요구하여 참여도의 반응을 본 결과 송명훈(2010)의 연구와는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손으로 타악기를 연주할 때 울림막의 직접적인 접촉이 치매노인의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결과를 내었지만, 시설에 거주한 일반노인에게서는 치매노인의 감각적인 연주방법 보다 말렛을 이용한 연주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말렛을 이용한 연주는 명확한 소리 울림이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활동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적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 손으로 타악기를 연주하도록 할 경우 지속적인 연주와 참여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말렛을 이용하여 연주를 하도록 하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타악기의 강한 진동과 명료한 소리가 음악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비언어적 활동 안에서 리듬을 이용한 타악기 연주는 청각적 자극을 통한 그룹 활동이 그룹원 간의 지지적 관계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관계형성 안에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성취감과 자기존재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시설노인의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의 리듬



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 활용을 통하여 시설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울의 정도 차이에 따라 대상자를 구별 선정하여 우울 정도의 따른 반응을 더 구체화함으로써 각 우울 정도에 따른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치료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최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노인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음악 치료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선경(2009).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우울증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629-643.
- 강환세 · 마은경(2008). 노인복지시설 사회화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노인복지학회**, 39, 303-322.
- 김광수(2007). 노인의 거주형태가 스트레스 및 대처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3(1), 139-160.
- 김귀분 · 김인숙 · 정미영 · 오혜경 · 권영숙 · 이은자 · 서은주 · 김세란(1999). 시설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음악 요법 효과. **노인간호학회지**, 1(2), 213-223.
- 김동휘(2008).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 이금룡 · 정순돌(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20(3), 211-226.
- 김성숙(2010). 노인미술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2001). 노년기 신체적 건강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10, 55-74.
- 김이량 · 전해자(2009). 여성노인의 댄스스포츠 활동이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3(2), 15-27.
- 김정선(1998). 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 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148-158.
- 김주현 · 한경혜(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나미희(1999). 노인의 우울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해본 치료적 음악활동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 숙 · 장숙희 · 박재경(2001).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과의 관계연구. **노인간호학회지**, 3(2), 135-145.
- 박금자 · 이지현 · 배경의 · 강양희 · 송후승(2007).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과 우울. **노인간호학회지**, 9(1), 51-59.
- 박미영(2006). 무료요양시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순 · 김희영(2010). 수공예 프로그램에 의한 시설노인의 우울 및 인지기능. **고령자, 치매작업치료학회지**, 4(2), 1-9.
- 배재남(2001). 도시지역 노인의 치매 우울장애, 물질사용 장애에 대한 역학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www.stat.mw.go.kr](http://www.stat.mw.go.kr).
- 변호순(2005). 미신고 복지시설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층분석(HLM): 개인요인과 시설요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경현 · 김영숙(2003).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회심리학회지**, 9(1), 115-137.
- 송명훈(2010). 타악기 연주 방법에 따른 치매노인의 반응비교 연구: 진동촉각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창환(2010). 삶의 특성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2), 453-469.
- 양혜경(2010).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노인의 우울증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127-143.
- 유미나(2009). 시설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타악기 연주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용권 · 정효영(2010). 원예치료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 식물, 환경학회지**, 13(3), 7-15.
- 이덕조(2003).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진 · 이기옥(2005). 장기요양 보호노인의 수발만족과 노인의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5(1), 119-131.
- 이에경 · 이근매(2006).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여성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케어복지학**, 2(2), 51-69.
- 이영호(2006). **정신건강론**. 서울: 공동체.
- 이재모 · 이신영(2006). 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의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32, 203-222.

- 이주희(2001). 집단 음악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3(1), 42-52.
- 이화자(2006). 시설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연구. **간호과학**, 18(2), 31-38.
- 임영식(2002).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e ability. **연세총론**, 11(1), 107-130.
- 전은영 · 김숙영 · 김귀분(2005).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우울 및 건강상태 분석. **노인 간호학회지**, 7(2), 157-165.
- 정순돌(2004).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노년학**, 24(4), 107-122.
- 정인파 · 광동일 · 조숙행 · 이현수(1997).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 KGDS) 표준화 연구. **노인정신의학**, 1(1), 61-72.
- 정진오(2008). 여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지각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1), 715-724.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현주(2007).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차주원(1991).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관한 연구: 일반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말옥 · 박혜령(2005). 노인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대한 집단 음악프로그램 효과성 비교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7, 303-324.
- 최애나 · 김윤희 · 정광조(2010). 음악치료활동이 주간보호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6(1), 103-121.
- 최영희(1999). 노인의 자긍심, 무력감, 의존성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1(1), 93-108.
- 하정은(2002).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 **병원약사회지**, 19(3), 315-318.
- 한경희 · 이상미 · 서정근(2009). 집단원예치료가 노인의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 식물, 환경학회지**, 12(4), 1-12.
- 한정숙 · 이경순(2002). 원예치료가 시설노인의 삶의 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1(4), 609-620.
- Bittman, B. B., Berk, L. S., Felten, D. L., Westengard, J., Simonton, O. C., Pappas, J., & Ninehouser, M. (2001). Composite effects of group drumming music therapy on modulation of neuroendocrine-immune parameters in normal subjects. *Alternative Therapy and Health Medicine*, 7(1), 38-47.
- Boxill, E. H.(1985). *Music Therapy Developmentally Disabled*. Rockville, MD: Aspen Systems.
- Clair, A. A., & Memmott, J.(2008). 노인음악치료연구회 역(2009) **노인음악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Cohen, G. D.(1990). Psychopathology and mental health in the mature and elderly adult.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pp. 359-37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hen, X.(1992) Active music therapy for senile depression. *Chinese Journal of Neurology and Psychiatry*, 25(4), 208-252.
- Davis, W. B.(1999). 김수지·고혜경·권혜경 역(2002). **음악치료학개론: 이론과 실제. 음악치료와 노인**.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 Gatz, M., Kasl-Godley, J. E., & Karel, M. J.(1996). Aging and mental disorders.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4th ed.)*.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George, L. K.(1990). Self-and identity in later life: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self.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3, 133-152.
- Gfeller, K. E.(1999). 김수지·고혜경·권혜경 역(2002). **음악치료학 개론: 이론과 실제. 음악, 인간 교유의 현상 및 치료의 도구**.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 Hooyman, N. & Kiyak, H. A.(2002).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6th Edition*. Boston, MA. Pearson Education Company
- Koenig, H. G. & Blazer, D. G., III(1996). Minor depression in late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4(Suppl 1), Fall 1996, S14-S21.
- Kwak, E. E.(2007). Effect of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on Gait Performance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Journal of Music Therapy*. XLIV(3), 198-216.
- Maddox, G. L., Atchley, R. C., Evans, J. G., Hudson, R. B., Masoro, E., J., Mezey, M. D., Poon, L. W., & Siegler, I. C.(2001). *The Encyclopedia of Ag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Y..
- Maxfield, M.(1990). Effects of Rhythmic Drumming on EEG and Subjective Experience. *San Francisco Institute of Transpersonal Psychology*. Doctoral Dissertation.
- Meyer, L. B.(1956).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rgan, L., & Kunkel, S.(2001). *Aging: The social context*.

N.Y.: Pine Forge Press.

Payne, J. L., Sheppard, J. E., Steinberg, M., Warren, A., Baker, A., Steele, C., Brandt, J., & Lyketos, C. G. (2002).

Incidence, prevalence, and outcomes of depression in residents of a long-term care facility with dementi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7, 247-253.

Radocy, R. E., & Boyle, J. D.(1997). 최병철 · 방금주 역 (2001). **음악 심리학**. 서울: 학지사.

접수일 : 2011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7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9월 26일